



페루의 끝자락 딱나에서 보내는 11 월의 기도편지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페루의 끝자락 딱나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주님 안에서 평안 하셨는지요.

먼저 우리를 주님의 자녀이며 또 일꾼으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동역자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의 헌금으로 저희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막내 베키도

미국에서 잘 정착해 가고있고 공부를 열심히 노력해 감사하게도 내년에 Biola 대학으로 편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페루는 겨울의 옷을 벗고 가벼운 옷으로 입을수 있는 여름을 맞이했습니다. 밤과 아침은 아직 추위가 강해 기온 차이가 많아, 많은 사람들이 감기와 또 엘러지로 고생들을 하네요.

이곳 페루의 딱나에서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믿음의 동역자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소년원 소식

지난 8 월에는 18 주간의 풍성한 삶 (Vida Abundante)공부를 잘 마쳤습니다. 지금은 다시 여러 리더들과 함께 성경공부를 5 팀으로 나누어 계속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오랜 시간들을 가족과 떨어져 감금된 이곳 생활에 지치고, 가족에게 버려진 상처, 집안 문제(부모의 문제로 가족들이 흩어지게 되면 12 살된 아이들은 소년원에 보내져 다른 가족들이 데리고 나가거나, 문제가 해결 될때까지 이곳에 있습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가끔씩 아이들의 가슴에 심하게 파고드나 봅니다.



한참 방황할 사춘기에 자신에게 일어난 이해할수 없는 상황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겠조.... 멀쩡히 잘 지내다가 가끔씩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소년원에서 도망치려다가 붙잡혀 근신하는 아이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이 아이들에게 위로가 될수 있을까?... 주님의 말씀이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될수 없을까? 때론 낙심과 한계에 부딪치게 됩니다. 그러나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언젠가 그들의 인생에

역사하실 성령님을 믿고 계속 기도와 사랑의 씨앗을 심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우리의 몫임을 다시금 되새겨봅니다.

빌라-빌라(Vila-Vila): 어촌 어린이사역



시간이 흐르면서 처음보다는 숫자가 줄어 들었지만, 주님이 명하신 곳에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에 감사합니다. 힘들다가도 어떤 아이가 “고마워요” 하면서 저를 안아줄때면 주님이 아이를 통해 ‘너의 수고를 내가 안다’

라고하시며 저를 안아 주신다는 느낌이들어 힘이됩니다.

삼마 (Sama): 농촌 청소년사역



어느날 우연히 시청사람이 저희가 Vila-Vila 에서 아이들을 섬기는 것을 유심히 보고, Sama 지역에도 와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Sama 는 이상송배가 아주 강한 농촌 마을로 교회가 아직도 없고 저희가 6 년 전에 잠시 사역을 추진하다가 포기하고 계속 기도만 하던 곳인데 주님이 이렇게 다시 불러 주셨습니다. 그것도 시청사람들이 우리에게 부탁을 하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처음부터 너무 많은 아이들을 받을수가 없어 고등학생 25 명만 받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정착이 되어가는 것을 보고 차근차근 학생들을 더 받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일주일에 이틀만 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목요일은 성경공부, 금요일은 방과후교실로 영어, 한국어, 음악, 미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5 명 학생이 복음을 영접하였습니다, 앞으로 주일 예배를 삼마에서 드릴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크신일을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삼마는 저희들이 있는 딱나도시에서 차로 1 시간정도 떨어진 농촌지역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복음을 들고 이동하는 교회입니다. 현재 저희 리더들 10 여명이 서로 돌아가면서 차편이 되는대로 함께 이동을 합니다. 차 한대로 이동할수 있는 인원수는 6 명이라, 큰 차가 있다면 더 많은 사람이 갈수 있어서 더 많은 아이들을 받을수 있을텐데 라는 안타까움이 있어 차량구입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큰 것은 못해줘도 함께 작은것을 나눌수 있어 행복합니다.

주님이 이땅에서 하시는 역사에 함께 동참을 할수있는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기도와 물질로 주님나라 확장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은 행복한 분들이십니다.

(잠언 16:3)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리라”

때로는 사역을 하면서 힘든 부분들을 맞닿을 때도 있고, 수건을 던지고 싶을때(페루에서는 포기의 의미로 사용)도 있지만 이 모든 사역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지치지않고 날마다 새힘을 공급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반응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영육간에 늘 강건하시고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페루의 끝자락 딱나에서 장인성/장에스더 선교사 드림

기도제목

1. 소년원 사역(성경공부, 음악교실, 한국어 교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2. 어촌(Vila Vila)과 농촌(Sama)의 어린이 사역, 청소년사역 그리고 방과후 교실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3. 장거리사역을 위한 큰 자동차(suv)구입에 필요한 재정이 잘 마련될 수 있도록
4.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